존경하는 제 19 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 협의회 위원님 여러분,

17, 18 기에 이어 19 기 회장을 연임하시게 된 엄경호 협의회장님께 먼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각별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 산하의 6 개 협의회 출범식 모두에 함께 해주시는 정세현 수석부의장님께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이헌 대사님과 스리랑카 한인사회 대표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스리랑카를 비롯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등이 포함된 서남아 협의회 출범식이 이곳 스리랑카에서 거행되고 있음은 우리 민주평통 위원들에게 무척 많은 것을 시사 합니다.

우리의 고국과 마찬가지로 스리랑카도 격동의 근대사를 겪은 나라입니다.

우리의 고국이 해방된 해에 스리랑카는 영국으로부터 독립되면서 무려 443 년 동안에 걸친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식민지배를 종식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국이 해방의 기쁨과 함께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듯이, 스리랑카는 지금도 싱할리스 민족과 타밀 민족간의 반목과 대립이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혈분쟁을 피해 수많은 스리랑카 국민들이 지난 20 여년 넘게 인도양을 가로질러 호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등의 아픔을 겪고 있음은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현대사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민족 역시 한 언어, 한 핏줄,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74 년 넘게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반추를 통해 민주평통 해외협의회의 중요성은 한층 더 부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외평통위원의 역할은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출범식 바로 직전, 우리의 의장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하셨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정확히 2 년전, 민주평통 18 기 출범과 때를 같이해 신남방정책을 천명하셨습니다.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수준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 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외교적 지표를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즉, 신남방정책에 방점을 두면서 외교적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의 역할과, 소속 위원 개개인의 책임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고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성공 여부나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홍보하고 각인시키는 것은 모두 공공외교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평통 해외위원은 공공외교의 첨병이자 주역입니다. 이런 사실을 고국 대한민국도 충분히 인식하고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9 월 30 일 해외 간부위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거행된 19 기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대통령님께서는 “민주평통이 내디뎌온 발걸음은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역사 그 자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우리 민주평통 해외위원들의 활동은 공공외교의 역사 그 자체였음이 분명합니다.

대통령님의 언급대로, 우리에게는 향후 2 년 동안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한 힘찬 새 역사를 써야하는 시대적 소명이 주어졌다는 각오를 다지는 출범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같은 바람을 실천하기 위해 부디 향후 2 년동안 서남아시아 협의회 소속의 53 명의 자문위원님 모두, 엄경호 협의회장님과 주진 인도 지회장님, 윤희 방글라데시 지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위원의의 책무 구현에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